

## ▶ 달러/원 주간 전망

### • 타격받고 있는 원화, 美·日 정책회의 변동성 촉각

서울, 12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원화 약세 압력은 살짝 둔화될 수 있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 따라 원화 약세 변동성이 재차 커질 수 있겠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10-1445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리더십 공백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경제, 통상정책 동력 약화 등 원화를 둘러싼 시각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어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향후 정국 불확실성에 관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한은을 방문한 야당 기재위 국회의원들에게 당분간 환율이 예전 수준대로 돌아가길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탄핵 정국 때와 달리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현재의 최종 탄핵 결정 때까지 극심한 국론 분열이 지속될 것으로 볼 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말이라는 시기상 해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포지셔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난주 환율은 1430원대에서 교착상태를 보여왔는데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 만으로 환율이 계엄사태 이전 레벨인 1410원 아래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미국과 일본 및 영국 통화정책회의라는 큰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원화는 또 다시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에서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약 94%로 압도적이다. 반면 일본은 동결 전망이 약 77%이고, 영국도 약 88%로 동결 전망에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견조한 미국 경제 여건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 등을 감안할 때 내년 미국 금리 인하 횟수가 당초 시장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수준에서는 시장은 내년 5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 중인데 12월 연준 이벤트를 소화하며 금리 경로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이로 인해 달러 전망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최대 변수다.

한편, BOJ 회의 결과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동결 전망에 갑자기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분위기로 BOJ발 변동성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굵직한 대외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원화 약세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

다. 외환당국이 변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환율이 호가 공백 속 급하게 오르는 경우가 종종 관측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주중에는 챙겨야할 대외 지표도 적지 않다. 미국 12월 S&P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와 미국과 중국 11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그리고 미국 11월 PCE 물가 등이 예정돼있다.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이슈

### ⊙ 연준 금리 인하, 그 다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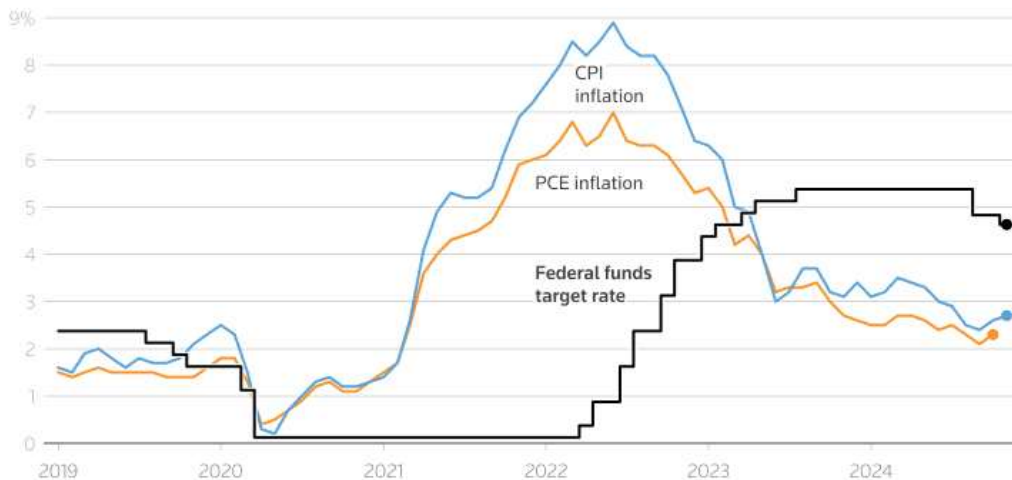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에 부합하는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수요일에 25bp의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 번 연속 인하가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트레이더들은 금리가 현재 4.5%~4.75% 범위에서 2025년 말까지 약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90bp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연준의 자체 금리 전망과 향후 완화에 대한 제롬 파월 의장의 통찰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9월에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경제가 더 강하다고 말하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 All eyes on the Fed's last policy meeting of the year

The U.S. Federal Reserve started a rate cut cycle in September and has lowered rates by a total of 50 basis points.



Note: The plotted federal funds target rate is the midpoint of the official range.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Dec. 11, 2024

### ⊙ BOJ 인상 보류?

지난 2주 동안 일본은행(BOJ) 정책 전망의 시계추가 크게 흔들리면서 트레이더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12월19일 결정이 다가오면서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신호는 더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 목요일 로이터는 정책 입안자들이 세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임금에 대한 추가 데이터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기다리면서 잠시 멈추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블룸버그는 BOJ 관리들이 추가 긴축을 늦춰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BOJ의 결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준이 12월18일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 달러/엔이 급등하는 것이 한 가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강한 상황에서 연준이 예상을 뒤엎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 ⊙ 독일 증시 상승의 이면

독일의 DAX .GDAXI 지수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2% 상승했고 유럽 지수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방위, 기술,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며 부진했던 자동차주 실적을 만회하고도 남았다. 독일 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정치적 드라마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16일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이 확정되면 2월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세부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DAX 기업 매출의 18%만이 독일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형주인 MDAX .MDAXI 기업 매출을 보면 33%가 독일에서 발생하는데 MDAX 지수는 올해 1.1% 하락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독일 기업 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5.4% 감소한 반면, 유럽 STOXX .STOXX 기업 이익은 8.2% 성장했다.

독일 증시는 근본적인 경제 및 정치 현실과 좀 더 밀접하게 일치하기 시작할 수 있다.

### ⊙ BOE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영란은행(BOE)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쪽이다.

트레이더들은 영란은행이 목요일에 금리를 4.75%로 유지하고 내년 2월까지 세 번째 25bp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 10월 예산안에서의 고용주 세금 인상으로 대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경고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ECB가 BoE보다 더 빠르게 정책을 완화하면서 파운드 가치는 유로 대비 2년 반 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이러한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리 전망에 따라 움직이는 영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GB10YT=RR 은 한 달 전 4.5% 이상에서 약 4.38%로 하락했다.

세금 인상으로 고용 계획이 억제되고 소비자 신뢰가 약해지면서 영국의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파운드 낙관론자들은 BoE의 기조 전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① 유로존 PMI 수축세 전망

한때 호황을 누렸던 주요 경제권의 서비스 부문이 흔들리면서 미국 제외 지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12월 구매관리자지수(PMI)를 통해 경기 둔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는 유로존 종합 PMI는 10월의 50.0에서 11월 48.3으로 하락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12월에는 48.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관세 우려와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혼란이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금리 인하가 심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PMI 데이터가 너무 비관적인 것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Only US shows expansion in business activity in November

Composite Flash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across major economies **Expansion > 50 > Contraction**

Last 12 months	Dec. 2023	Jan. 2024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Nov.
Australia	47.4	48.1	51.8	52.4	53.6	52.6	50.6	50.2	51.4	49.8	49.8	49.4
Euro zone	47.0	47.9	48.9	49.9	51.4	52.3	50.8	50.1	51.2	48.9	49.7	48.1
France	43.7	44.2	47.7	47.7	49.9	49.1	48.2	49.5	52.7	47.4	47.3	44.8
Germany	46.7	47.1	46.1	47.4	50.5	52.2	50.6	48.7	48.5	47.2	48.4	47.3
UK	51.7	52.5	53.3	52.9	54.0	52.8	51.7	52.7	53.4	52.9	51.7	49.9
U.S.	51.0	52.3	51.4	52.2	50.9	54.4	54.6	55.0	54.1	54.4	54.3	55.3
Japan	50.4	51.1	50.3	52.3	52.6	52.4	50.0	52.6	53.0	52.5	49.4	49.8

Source: ISEF Datastream | Reuters, Nov 12, 2024 | By Vinod Kharia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연준 금리 전망에 주목

뉴욕, 12월16일 (로이터) -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지침을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연준 회의에서 마지막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나스닥지수( .IXIC )는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2만포인트를 돌파했으며 올해 들어 32% 상승했다.

S&P500지수( .SPX )는 약 27% 올랐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연준은 이번 주에 금리를 25bp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은 견조한 경제 성장과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년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베팅을 조절하고 있다.

국채 가격과 반비례하는 채권 수익률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상승하여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US10YT=RR )은 금요일에 3주 만의 최고치인 4.38%를 기록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광범위한 시장 혼란의 잠재적 트립 와이어로 지적한 4.5% 수준에 근접해 있다.

플란테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짐 베어드는 "연준이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 증시에 약간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선물 시장은 내년 12월까지 금리가 현재 수준인 4.5%~4.75%에서 3.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9월에 예상됐던 금리보다 약 100bp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 회의에서 발표될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은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가 어디로 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가 될 것이다.

BNP 파리바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연준의 "매파적 인하"를 예상하며, 연준이 "길이를 정하지 않은 추가 인하 중단에 대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BMO 프라이빗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캐롤 솔레이프는 시장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읽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모멘텀이 연말까지 추가 상승을 시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일부 시장 기술적 지표는 증시 랠리가 막바지에 달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메모에서 나스닥 구성 종목 중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종목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랠리를 지지하는 종목이 적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턴퀴스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나스닥지수는 장기 모멘텀이 재개되기 전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2월16일 (월)

- ⊙ 한국은행: 총재 ASEAN+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AMRO 포럼) (09: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 (09:1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2024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14: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18:00)

12월17일 (화)

- ⊙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BIS-FSC-BOK 공동 컨퍼런스 (09:00)
- ⊙ 한국은행: 2024년 제22차(11.28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12월18일 (수)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총재 기자간담회 (14:00)
- ⊙ 기획재정부: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17:00)

12월19일 (목)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10: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10: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12:00)

12월20일 (금)

-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금융감독원: 원장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 (10:00)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1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2월 10-17일		중국	FDI (YTD)	11월		-29.80%
12월16일	08:50	일본	기계류 주문 MM	10월	1.2%	-0.7%
12월16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12월		49.0
12월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1월		-5.9%
12월16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11월	3.4%	3.4%
12월16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1월	5.3%	5.3%
12월16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1월	4.6%	4.8%

12월16일	18:00	유로 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12월	45.3	45.2
12월16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2월	12.00	31.20
12월16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 정치	12월	49.8	49.7
12월17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1월	0.5%	0.4%
12월17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1월	0.3%	-0.3%
12월18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2월	47	46
12월18일	08:50	일본	수출 YY	11월	2.8%	3.1%
12월18일	08:50	일본	수입 YY	11월	1.0%	0.4%
12월18일	19:00	유로 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11월	-0.3%	0.3%
12월18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 13일 주간		225.5
12월18일	22:30	미국	경상수지	3분기	-278.0B	-266.8B
12월18일	22:30	미국	건축허가건수	11월	1.431M	1.419M
12월18일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11월	1.342M	1.311M
12월19일	18:00	유로 존	경상수지 NSA, EUR	10월		51.46B
12월19일	22:30	미국	GDP 확정치	3분기	2.8%	2.8%
12월19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9일 주간	229k	242k
12월20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1월	4.05M	3.96M
12월20일	08:30	일본	CPI MM NSA	11월		0.6%
12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12월		3.10%

12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12월		3.60%
12월20일	22:30	미국	개인소득 MM	11월	0.4%	0.6%
12월20일	22:30	미국	소비 MM	11월	0.5%	0.4%
12월20일	22:30	미국	PCE 물가지수 MM	11월	0.2%	0.2%
12월21일	00:00	유로 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2월	-14.0	-13.7
12월21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12월	74.0	74.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16일 (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오후 5시15분)

12월17일 (화)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시작 (18일까지)

12월18일 (수)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19일까지)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19일 오전 4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19일 오전 4시30분)

12월19일 (목)

- ⊙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발표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및 의사록 공개 (오후 9시)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中 당국, 트럼프 무역 리스크에 내년 위안 약세 허용 고려 중

12월11일 (로이터) -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시 무역 관세 인상에 대비해 2025년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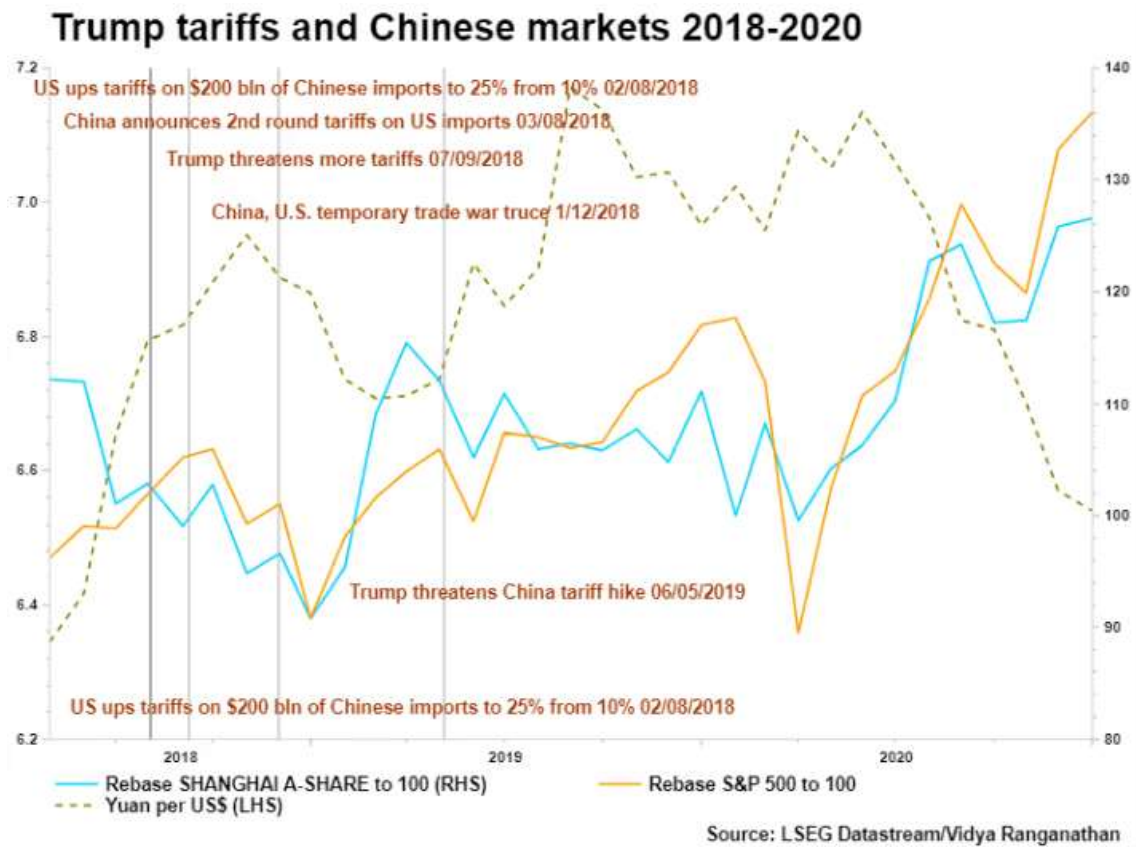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의 더 큰 관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더 큰 경제 부담책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인식을 반영한다.

트럼프는 10%의 보편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안화( CNY=CFXS, CNH= )의 가치 하락을 허용하면 중국 수출품이 더 저렴해져 관세의 영향을 무디게 하고 중국 본토의 통화 정책을 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

로이터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세 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인민은행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언론 문의를 처리하는 국무원 정보판공실 역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내년에 위안화 절하를 허용하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 관리의 정책 발언에는 일반적으로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두 번째 소식통은 인민은행이 더 이상 위안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안화 가치 결정에 있어 시장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공산당 간부들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은 내년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 기초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발언에는 지난 7월에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지만 9월 발표에서는 누락되었던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위안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안화 정책은 올해 금융 분석가들의 노트와 기타 싱크탱크 토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주 주요 싱크탱크인 중국 금융 40 포럼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무역 긴장 기간 동안 환율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대신 비달러 통화, 특히 유로화 가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민은행의 생각을 잘 아는 세 번째 소식통은 로이터에 인민은행이 무역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수준인 7.25에서 약 3.5% 위안 가치가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이은 관세 발표로 위안화는 달러 대비 12% 이상 약세를 보였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이 5%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 수출 이득을 늘리고 수입품 가격을 더 싸게 만들어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은 내년 말까지 위안화가 달러당 7.37까지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안화는 9월 말 이후 달러 대비 가치가 4% 가까이 하락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과거에 국영 은행들의 위안화 매매를 통해 위안화의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억제해 왔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BOJ, 다음 주 금리 동결로 기울어

도쿄, 12월12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는 정책 입안자들이 해외 리스크와 내년 임금 전망에 대한 단서를 면밀히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다음 주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이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내년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월 또는 3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BOJ 내에서는 최종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일본이 12월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했다고 믿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결정은 일본이 지속적인 임금 주도 물가 상승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정책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 BOJ 결정 몇 시간 전에 끝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회의와 같은 이벤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엔화 급락을 유발할 경우 통화정책위원회가 금리 조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여전히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도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BOJ 정책 입안자들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일본은 임박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고, 다른 두 소식통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BOJ는 12월18~19일 올해 마지막 정책 회의를 열고 단기 금리를 현행 0.25%에서 인상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BOJ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약 90%는 3월 말까지는 BOJ가 금리를 0.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30% 미만으로 보고 있다.

#### ◆ 트럼프 리스크

BOJ는 다음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12월과 1월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2년 넘게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등 추가 금리 인상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확신이 BOJ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로 BOJ는 소비가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엔화 반등으로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긴박감은 없다. 이는 엔화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위험이 높아진 7월 BOJ가 금리를 0.25%로 인상했을 때와 대조적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우려할 만한 임금-인플레이션 소용돌이를 일으킬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1월이 아닌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시장에 BOJ가 경제에 중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BOJ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일본이 여전히 경기 침체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도 BOJ가 신중하게 움직이기를 원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월 회의에 대한 질문에 "경제가 좀 더 회복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소식통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 많은 BOJ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이 노조와의 내년 임금 협상에서 계속해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제안할지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월23~24일 회의까지 보류하면 BOJ는 내년 임금 전망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발언과 소규모 기업의 가

격 및 임금 결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분기 지역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위험 요소로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인상을 보류할 또 다른 이유다.

한 소식통은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해외에서 비롯된다"며 글로벌 수요 부진이 기업 수익에 타격을 주고 임금 인상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깜짝 놀라게 하고 달러 급등을 촉발하면 BOJ가 급격한 엔화 매도세를 늦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종합)-中, 성장 촉진 위해 통화정책 전환..2010년 이후 처음

베이징, 12월9일 (로이터) - 중국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관영 언론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화통신은 중앙정치국을 인용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비전통적인" 경기 대응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중국 당국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진전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진전을 활용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정책적 도구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특별한 경기 순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새로운 통화정책 문구는 2010년 말 이후 처음으로 완화적 스탠스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정책 스탠스를 '완화적인', '적절히 완화적인', '신중한', '적절히 타이트한', '타이트한'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해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채택했다가, 2010년 말 '신중한' 통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